

차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

“기간제법은 남기고 노동법 4개 우선 처리를”

경제·국민 최다 언급…여 “절절한 호소” 야 “실망”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국민’과 ‘경제’였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1분까지 31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진 질문 응답은 오후 12시9분까지 1시간8분 동안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 재킷’을 입었다. 결연한 의지를 밝힐 때 이 옷을 자주 입어왔다.

이날 대국민담화 동안 ‘국민’이란 단어는 38차례 나왔고, ‘경제’란 단어는 34차례, ‘일자리’란 단어는 22차례, ‘개혁’이란 단어는 21차례 나왔다. 또 ‘북한’은 19차례, ‘국회’는 17차례, ‘노동’은 15차례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의 역할 촉구=이날 박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잖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공개 담화를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절충안 제시=박 대통령은 노동 5법과 관련, 노동계와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고, 파견법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이 노동법 협상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에 대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확정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비정규직 확대법”,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등 정치권 비판=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해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북의 핵실험과 관련,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며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은 현실정치에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권분열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 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상반된 평가=여당은 “절절한 호소”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였다”고, 신의진 대변인은 “안보,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호소였다”고 각각 말했다.

반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의(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안보·경제·민생·정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당 영입경쟁…호남 정치신인 주가 급등

‘한걸음 더’ ‘새로운 길’ 등 정치모임 전문직 인사 포진

더민주·국민의당·국민회의 “미래로 키우겠다” 러브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신당 추진 세력 간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신인들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 명망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신진인사들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일 “탈당해서 비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 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지난해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재 영입과 관련, “기성 권력이나 학벌, 그리고 스펙으로 다듬어진 가공된 보석보다 묻혀있

는 원석이나 남종지추를 찾아 미래세력으로 키워 나가는 게 새로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재 현역 의원의 탈당으로 신진인사 수급이 많아졌고, 새정치를 추구하는 국민의당 등 신당 세력도 광주·전남 탈당 의원의 참여가 많은 만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신진인사 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광주·전남지역 정치신인 그룹에 주목하며 작·간접적으로 합류를 제안하는 등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정치 신진모임으로는 ‘정치혁신 한걸음 더’(이하 한걸음 더)와 ‘새로운 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주지 못한 채 기득

권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는 현역 의원들에 비판을 가하며 ‘정치 구도의 재편과 대안 세력의 탄생’을 추구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걸음 더’는 김민중·김보현·임택·조오섭 광주시의원과 강성휘·문행주·우승희 전남도의원, 강용주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임과 정국진단 토론회를 하며 기득권 정치세력을 견제해왔다.

이들은 지난해말에도 성명을 내고 “더민주의 실패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탈당 호남의원들이 신당 창당 흐름에 합류해 안철수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호남 정치 혁신과 거리가 멀다”며 탈당 의원들의 백의종군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보라 코끼리협동조합 이사,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서동용 변호사, 윤복현

광주대 교수,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홍인화 전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새로운 길’은 광주·전남을 주축으로 대안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현역 의원들의 더민주 탈당과 야권 신당 합류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기득권의 수혜자였던 의원들이 탈당,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에 합류하면서 호남의 정치개혁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적 관계자는 “더민주와 신당 세력들의 새로운 인재영입 경쟁에 광주·전남지역의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면서 “신인그룹 중에서도 기성정치권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직 분야의 새로운 인사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탈당사태…착잡한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권노갑 전 상임고문 탈당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 현장

“광주 북구에서 희망의 정치 하겠다”

심정우 새누리 예비후보 여수를 출마 선언

김유정 전 의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유정 전 대변인은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처받은 광주를 보듬고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저를 길러준 광주에 보답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25년 전 신민주연합 창당 발기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로 50년 만의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힘을 보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5년간 청와대에서 일했다”면서도 “제1야당에 몸담은 사람, 광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김 전 대변인은 북구갑에 출마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더민주 주류인 3선 강기정 의원에게 도전한다.

새누리당 심정우 여수를 예비후보가 13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간 정치에 몸담아 오면서 4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표 한 장을 구하는 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배웠다”면서 “내 고향 여수에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새로운 정치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는 여수시장 세 번, 국회의원 한 번 출마해 모두 낙선했지만 여수



발전을 위해선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앞장섰다”고 밝히고 “여수는 새 바람·새 변화와 함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여수를 대한민국 선진화 일반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권일·여수=김창화기자 chkim@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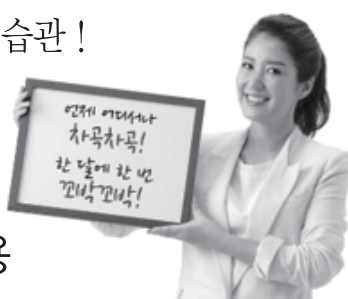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
보
대
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
용
대
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